

대학간 학생이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오 영 재
(고려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대학간 이동을 실행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밝히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대학간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영역 및 내용을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영역 및 내용에 따라 설문지를 제작하고 사전 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64 \sim .87$ 이었다. 조사대상은 서울, 수원, 천안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 8개 대학과 서울 소재 전문대학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507명이었다. 조사기간은 2004년 9월 중순부터 동년 10월 중순까지 약 1개월 동안이었으며, 설문지 회수율은 약 58%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SPSSWIN 11.0 Version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빈도분석, F검증과 사후검증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이 대학간 이동을 실행하는데 있어 대학이전 요인과 문화·경제적 요인은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그 외 대학의 소재지역, 학생의 성별과 고교성적, 이전대학 평균학점, 편입학 결정 시기, 학생이동의 유형 등에 따라 영향요인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영향요인의 우선순위에 있어 대학 이전 요인, 경제적 요인 및 문화적 요인 등의 순서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단위대학 학사운영제도요인, 통학의 편리함, 부모의 요구와 기대나 가족이나 친구들의 권유와 같은 요인들이 약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간 이동을 실행한 학생들이 영향요인에 관하여 제시한 우선순위의 약 73%가 단위대학 외적 요인이었다.

[주제어]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생이동, 대학 편입학

I. 서 론

한국의 대학간 학생이동은 전통적으로 서울 소재 명문대학을 정점으로 하여 지방에서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41-B00479).

수도권으로,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위계구조를 이루어왔다. 실제 최근 3년 간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의 약 30%를 초과하는 숫자인 연평균 10만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대학에 편입했으며, 이들 중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입학한 학생들의 비중이 1999년 70.3%, 2000년 70.7%, 2001년 72.2%로써 절대적인 수도권 집중성향을 보이고 있다(교육부, 2000; 이두휴·고형일, 2003). 또한 수도권대학 일반편입대상자의 약 62~64%가 지방 소재 대학출신자이며, 서울과 대도시 및 수도권 대학 편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출자는 대폭 감소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0).

이러한 대학간 학생이동의 추세는 서울 및 4년제 대학 선호현상의 심화가 낳은 한국 대학사회의 위계적 서열구조를 반영하고 있으며,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의 재학생 이탈현상을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학생자원 확보의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나타나 일부 단위대학의 생존과 발전능력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학 존립과 운영의 위기에 처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아직까지 재학생들의 유지보다는 안정적 신입생 확보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입시 철이 되면 보다 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경주하던 대학들도 일단 신입생을 선발한 이후에는 학생들의 효과적인 유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서는 지나치게 무심한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는 대학 수요-공급 간의 불균형 및 그에 따른 신입생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식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휴학, 편입, 재입학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최초 입학 대학을 떠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제 단위대학들은 신입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 뿐 아니라 재학생들의 효과적 유지전략과 교육의 질적 관리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과 같이 학생들의 대학선택과 그 잔류결정력이 커지고 있는 학생소비자주의 시대에 있어서 학생들이 대학간 이동을 생각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것은 교육적 측면이나 대학 행정적 측면 모두에서 의미 있는 탐구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대학생들이 대학간 이동을 결행하는 영향요인은 복합적이고 또한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무조건적인 서울 및 4년제 대학 선호경향이라는 요인들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컨대, 대학생활에 대한 싫증과 낮은 학점(Austin, 1977), 개인과 기관의 욕구 및 이해의 불일치(Getzlaf, et al. 1984), 대학공동체 구성원과 개인간의 충분한 접촉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개인적 소외(Anderson, 1988) 등 주로 학생들이 대학에서 겪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 혹은 개인과 대학기관과의 원만하지 못한 상호작용 요인들이 학생이동의 원인으로 제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대학간 이동을 결단하는 이유가 다양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Tinto, 2003). 대학간 학생이동은 학생 개인 차원과 단위학교 차원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혹은 대학이전 단계의 문제에서 파생할 수도 있다. 이는 대학간 학생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는 대학 이전 단계에서 조처해야 할 내용도 있고, 단위 대학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는 요인도 있으며, 국가수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도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외국의 경우에는 지난 20여 년 간 대학생들의 대학간 이동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반면(Beans, 1983; Tinto, 1988; Grubb, 1991; Cabrera, Nava, 및 Castaneda, 1993; Des Jardins, Ahlburg, 그리고 McCall, , 1999),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대학생 중도 탈락에 관한 김재웅(1992)의 연구와 대학생 학업중단에 대한 대학기관특성을 분석한 이병식(2003) 연구를 제외하고는 그와 관련된 연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김재웅의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며, 이병식의 연구는 대학생 학업중단에 대한 기관특성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대학간 학생이동이라는 동태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단위대학·사회 문화적 요인 등을 포괄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한 실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간 학생이동의 영향요인을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학간 학생이동의 영향요인들을 이론적으로 탐색하여 체계화한다.
- 둘째, 대학간 학생이동의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수준을 밝힌다.
- 셋째, 대학간 학생이동 영향요인의 우선순위를 밝힌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간 학생이동의 개념

대학생들의 학업중단에 관련된 개념들은 학업중단(withdrawal), 퇴학(dropout), 휴학(stopout), 전출(transfer) 등으로 다양하다. 중도퇴학(dropping-out) 혹은 중도 탈락(dropout)이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권균, 1991; 김재웅, 1992), <표1>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휴학, 학업중단, 퇴학은 대학생들이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소속을 중단하거나 떠남 혹은 일정기간 동안 어떤 한 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학생 학업 상태의 정태적 측면을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현상은 대학생들의 대학간 이동이라는 동태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들 개념들은 본 연구의 관심대상을 담아내기에 적절하지 않다.

한편 대학간 학생이동의 동태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존의 개념으로는 대학생들의 학업중단 중 전출(이병식, 2003: 137)이 있다. 그러나 전출은 한국 대학 학사업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념일 뿐 아니라 한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에 다시 다른 고등교육기관으로 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현상에 비해 협의의 개념이다. 따라서 대학간 학생이동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전출보다는 한국 대학 학사업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편입학(편입 및 재입학) 개념이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대학간 이동을, 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 혹은 졸업 한 후에 다른 고등교육기관으로 재학상태를 옮기는 현상으로 정의하며 이를 학사제도 상의 편입학과 동일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표 1> 학업중단 관련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학업중단(withdrawal, attrition, departure)	학생이 재학 중이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소속을 중단한 상태를 의미함. 중도탈락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함. 학업중단의 여러 가지 유형을 포괄하는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됨.
퇴학(dropout)	자의 혹은 타의로 재학 중이던 고등교육기관을 떠나는 것을 의미함. 중도퇴학 혹은 제적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함.
휴학(stopout)	학업을 잠시 중단했으나 다니던 학교에 일정기간 후에 다시 등록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함.
전출(transfer)	재학 중이던 고등교육기관을 떠나 다른 고등교육기관으로 소속을 옮기는 것을 의미함.

자료: 이병식(2003). p. 137.

2. 대학간 학생이동의 현황

1995년부터 1999년에 이르는 기간동안의 이른바 대학편입 확대정책에 따라 편입학하는 학생이 꾸준히 늘어났다. 수도권 일반대학에 지방대학 출신들이 편입학하는 비율은 1999년의 경우 약 62~64% 수준이며(강무섭, 1999: 7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0: 9), 특히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대학생 편입 및 전출자 관련 자료(이두휴·고형일, 2003: 200-201; 이수오, 2000: 27)를 보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 대도시와 경기, 충남, 경북 지역으로의 편입생이 증가한 반면 광주와 전·남북 지역의 전출자가 꾸준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편입학 확대정책으로 인하여 지방대학에서 수도권대학으로의 학생 편입학이 급격히 늘어나 급기야 지방대학들의 존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자 교육인

적자원부는 1999년에 편입학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한 바 있다. 그 결과 2000~2001학년도 편입학 정원은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고, 지방대학에서 수도권 대학으로의 학생이동현상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인적자원부, 2003년 보도자료). 예컨대, 2000학년도 1학기 편입학 인원은 99년 1학기 총 모집인원 40,264명에 비해 그 인원이 대폭 감소된 15,701명이었으며, 그 중 전문대학이 11,723명(74.7%), 일반대학 3,065명(19.5%), 산업대 등 기타 913명(5.8%)보다 높게 나타나 전문대학 재학생들의 이동이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0학년도에는 1999년도에 비하여 수도권대학들의 편입학생 선발이 크게 감소한 반면 지방대학 충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1999년 2학기부터 새로이 실시된 현행 편입학제도가 지방대학 재학생들의 수도권대학으로의 대거 이동을 자제시켜 지방대학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였을 뿐 아니라 편입을 위한 수도권대학 1~2학년 재학생의 교육과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2002년과 2003년에 접어들면서 지방대학에서 수도권대학으로 이동한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수도권대학으로 옮긴 지방대학 재학생이 2001학년도 1학기 1,440명, 2002학년도 2학기 2,860명에서 2003학년도에는 3,088명으로 늘어 지방대학 재학생들의 학생유출이 계속 증가하였으며, 자연계열과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편입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3년 1학기 일반대학 편입학 모집정원은 33,051명으로 전년도 1학기 모집인원보다 5,312명이 늘어났다. 이 중 일반편입이 27,220명, 정원 외 학사편입 3,869명, 재외 국민·외국인, 농어촌 출신, 기타 군 위탁생 등이 1,962명이다. 출신대학별로는 전문대학 졸업자가 16,557명(60.8%)으로 가장 많고, 일반대학 출신 8,572명(31.5%), 산업대·방송통신대 등 기타 출신 2,091명(7.7%) 순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784; 경향신문 2003. 6. 23).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편입자보다 전출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자연계와 인문·사회계의 전출학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다시 나타나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들이 편입학을 통해 수도권 4년제 대학으로 대거 옮기면서 지방대학의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2004년도부터 대학 편입정원을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이고, 2005년말부터 전형 횟수도 연 1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중앙일보, 2003. 7. 17). 대학 편입학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냉온(冷溫)정책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편입학 정책의 변화에 따라 연도별 전체 편입학 학생규모의 크고 작음에 차이가 발생할 뿐 기회가 주어지면 대학간 이동을 감행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잠재적 대학이동 자들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리나라 대학들은 여전히 서울과의 거리 정도, 대학 급별 및 대학평

관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피라미드형 먹이사슬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수인재의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대학간 학생이동의 영향요인

대학생들의 대학간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 이동의 원인을 한두 가지의 핵심 요인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복합적 요인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러 선행 연구들이 밝힌 대학간 학생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대학 이전 요인, 학생 개인요인, 단위대학 요인, 문화·경제적 요인 등 크게 네 범주로 나누어진다.

가. 대학이전 요인

대학생들이 대학간 이동을 실행하는데 있어 대학입학 이전단계의 요인을 충실하게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렵다. 다만, 여러 요인들 중 대학이전단계의 요인에 부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정도로 보인다. 예컨대, 미국 지역사회대학의 편입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Grubb(1992: 214)은 대학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타진해보기 위해 대학에 왔다 짧은 기간 내에 대학을 떠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진로상담기능이 약화되고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없이 고등학교를 떠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김재웅(1992: 18~19)은 어떤 요인이 고등교육체제로부터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보다 잘 설명해 주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에서 설정한 개인 요인 중 고등학교 평균성과 특별활동 내용 그리고 어머니가 기대하는 학생에 대한 교육수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Tinto(1988: 441~443)의 경우는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이탈현상을 분리, 이행, 통합의 상호 연관적인 세 단계로 설명하면서 특히 대학사회가 가정과 고등학교와는 사뭇 다른 다양한 요구를 함으로써 받게 되는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대학이탈의 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 조기이탈 현상이 고등학교 시기에 대학의 문화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접하지 못한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외 대학이전 단계의 요인으로 친구와 가족의 격려와 지원(Cabrera, Nora, 및 Castaneda, 1993), 고등학교 성적(Des Jardins, Ahlburg, 및 McCal, 1999; Elkins, Braxton, 및 James, 2000)등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나. 학생 개인요인

대학간 학생 이동에 관한 거의 모든 연구에서 학생개인요인은 영향력이 있는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다만, 개인요인이 다루어진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점이 시사적이다. 첫 번째 유형은 인구학적 변인과 학생 개인의 지적·정의적 특성으로 취급하는 경우(권균, 1991; Des Jardins et al., 1999; Blakers et al., 2003)이며, 두 번째 유형은 학생의 인구학적 변인과 가족배경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묶어서 보는 경우이다(Pritchard와 Wilson, 2003). 마지막으로 인구학적 변인과 개인의 지적·정의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이다(Grubb, 1991; 김재웅, 1992; Elkin, Braxton 및 James, 2000).

선행연구들에서 드러난 대학생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을 다루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즉,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대학생의 인구학적 변인으로 공히 학생의 성, 연령, 인종을 선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대학생의 성별 요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Blakers et al.(2003: 11~24)은 오스트리아 160개 캠퍼스 63,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소도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동할 가능성이 약간 높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 한가지 공통적인 사실은 대학생의 지적 특성으로는 고등학교 성적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의적 특성으로는 대학생의 성격과 기대 그리고 열망과 대학교육에 대한 동기 등이 중시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정의적 특성의 경우, 대학생 중도탈락 원인을 개인의 지적 능력, 성격 및 기대와 열망 그리고 대학학습에 대한 동기에서 찾은 권균의 연구(1991: 236)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가족배경, 부모의 교육수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포부수준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의 대학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을 종합하면 학생의 성, 연령, 인종, 지적능력, 정의적 특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부모의 기대 등으로 수렴될 수 있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흑인이나 히스패닉보다 백인학생들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학생들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학생들보다, 고등학교 성적이 낮은 학생들보다 높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직업계열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닌 학생들이, 교육적 열망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보다, 대학간 이동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Grubb, 1991: 200~206)는 이러한 종합적 관점이 적용된 연구결과에 해당된다.

다. 단위대학 요인

단위대학 요인은 대학생들의 대학간 이동 현상연구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왔던 요인이다. 대학생 감소와 이동현상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인 학생통합모형(Student Integration Model)과 학생감소모형(Student Attrition Model)이 주로 단위대학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경향을 충분히 시사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의 이탈 혹은 감소 그리고 대학간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개인과 대학의 통합정도, 대학 내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 경험, 대학 내 선호하는 교과과목의 존재 여부, 대학구성원들로부터 받는 다양한 지원 내용, 대학에서의 성취 수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인과의 통합정도는 Tinto(1988)의 학생통합모형(Student Integration Model)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 개념이다. Tinto 이론의 기본 전제는 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문적 능력과 기관의 학문적·사회적 특성간의 조화 즉, 학생과 대학간의 일치정도가 학생들의 교육목적에 대한 헌신과 대학 잔류의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특히 학문적 성향과 지적 분위기와 같은 학문적인 측면과 대학풍도와 비공식적 관계와 같은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개인과 대학간의 통합이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개념은 Rowley(2003: 250~251)에 와서 고객으로서의 학생의 충성과 헌신의 개념으로 발전한다. 즉, 충성심은 고객이 공급받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이 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김재웅의 연구(1992: 38)처럼 학문적·사회적 통합 변인 중 개인발전 만족도만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적인 지지를 나타내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편 교수, 동료 학생, 행정직원 등과 같은 대학 내의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대학생 이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교수와의 상호작용 경험에는 학생들에 대한 보살핌과 이해, 접근가능성, 격려, 학생에 대한 관심 표명, 현실적인 기대를 갖도록 하는 일, 경청, 학생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전달, 정직하고 직접적이며 상이한 견해에 대한 개방성 등과 같은 심리적 상호작용 경험(Shelton, 2003: 70~71)과 강의실에서의 토론, 교수의 질문, 협동학습, 역할극, 등 사고활동의 유의미성 등과 같은 강의실 수준에서의 학문적 상호작용 경험(Braxton, Milem 및 Sullivan, 2000: 581)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 활동, 각종 서클활동, 학술·취미활동, MT, 수학여행, 체육대회, 축제 등의 기회를 통한 동료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경험도 대학생들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요소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 음주 빈도와 한 번 마실 때의 음주량 등의 사회적 관계 요인과 자아존중감과 피로와 같은 정서적 요소가 대학생들의 대학

간류 혹은 대학간 이동에 영향을 준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Pritchard와 Wilson, 2003: 22~25)도 있다.

학생들이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선택 기회와 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전문화된 특정교과목의 존재 여부 및 학업성적도 중요한 요인이며(Blakers et al, 2003: 5-6), 대학의 규모와 소재지와 같은 물리적 특성(권균, 1991; 이병식, 2003)도 대학생들의 대학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되고 있다. 예컨대, 이병식(2003: 144~145)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의 규모가 커질수록 휴학생의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제적생의 비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소재한 대학들의 휴학생 비율이 읍 면 지역에 소재한 대학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라. 문화·경제적 요인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학간 학생이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들 중에서 문화·경제 요인과 같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 요인을 밝힌 연구는 지금까지, 2년제 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의 이동이 갖는 상징적인 측면과 4년제 졸업 학위 선호성을 제기한 Grubb(1991)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에 Blakers et al.(2003: 5~6)이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적 자원, 교육과 직업구조 및 실업률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이 대학간 학생이동 결정에 결정적인 요소임을 밝히고 있어 이 측면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의 사회적 평판 중시 경향과 서울 중심주의가 강한 교육문화요인 그리고 졸업 대학의 소재지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 거시적인 요인들의 영향력이 어떤 요인보다 클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되기도 한다.

4. 본 연구의 영역 및 내용

대학간 학생이동현상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학이전 요인, 학생 개인요인, 단위대학 차원의 요인, 사회의 문화·경제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대학생들의 대학간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요인간의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 검토에서 나타난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의 영역 및 내용을 설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2>와 같다.

<표 2> 본 연구의 영역 및 내용

영역		내용	
대학이전 요인	진로지도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지도 미흡, 이전 대학에 대한 정보의 부족	
	대학 선택	처음 대학 진학 시의 불만족스러운 대학 및 학과(부)선택	
	가정 및 친구 요인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요구와 기대, 가족이나 친구들의 권유	
학생개인 요인	인구학적 요인	성별, 연령	
	지적 요인	고등학교 성적, 대학에서의 평균학점	
단위대학 요인	학문적 분위기	교육풍토	교수들의 질과 수업열정, 학생들의 수준, 학구적 분위기, 소속감, 강의실에서의 학문적 경험
		제도요인	선호하는 교과 존재여부, 특성화된 전공, 복수전공, 이중전공 등
	사회적 분위기	교수들, 동료학생 및 행정직원들과의 관계, 음주의 빈도와 피로	
	생활환경 요인	통학의 어려움, 거주의 불편함, 생활비 문제	
	물리적 환경	학교의 소재지에 대한 불만, 학교규모와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	
문화·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서울소재 대학 선호의 일반적 경향, 대학평판과 간판 중시 풍조	
	경제적 요인	보편적인 취업에서의 유리함, 전 대학 소재 지역에서의 취업가능성	

Ⅲ. 연구의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수원, 천안지역 4년제 대학 8개 대학과 서울 소재 전문대학 2개 대학 등 총 10개 대학 남·여 편입학 학생 507명이었다. 대학 선정 시에는 대학의 소재지역과 남녀 공학 여부를 고려하였으며, 무엇보다 설문지 회수 가능성을 우선시하였다. 그것은 단위대학 편입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 어려운 연구수행 상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표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표 3> 조사대상 학생들의 배경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비율	편입	이전대학입학부터			
지역	구분			계획	이전대학입학부터	161	31.7	
	친안지역	169	33.3		이전대학재학중	332	65.5	
	수원지역	123	24.3		이전대학졸업후/취업후	14	2.8	
	서울지역	79	15.6		전체	507	100.0	
	서울(전문대)	136	26.8		이동	지방4_서울4	53	9.1
	전체	507	100.0			서울4_서울4	32	4.9
성별	남	162	32.0	지방4_지방4		96	17.4	
	여	345	68.0	지방4_서울2		15	2.4	
	전체	507	100.0	지방2_서울2		93	17.0	
	고교 성적	상	78	15.4		지방2_서울4	60	10.7
중		368	72.6	서울4_서울2	9	1.4		
하		61	12.0	서울2_서울4	48	8.5		
전체		507	100.0	서울4_지방4	11	1.6		
이전 대학 평균 성적	A	261	51.4	유형	서울2_지방4	53	9.1	
	B	219	43.1		지방2_지방4	37	6.1	
	C	24	4.7		전체	507	100	
	D	4	0.8					
	전체	507	100.0					

2. 조사도구와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편입학 학생들의 대학간 이동의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새로운 설문지를 만들었다. 설문지의 영역 및 내용 중에서 학생들의 고등학교 성적과 가정형편의 정도는 개인 간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응답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을 반영하였다.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alpha = .64 \sim .87$ 이었으며, 설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본 연구의 분석 틀에 기초하여 43개 문항으로 작성한 후 전문가협의회와 본 조사 실시 대상 학교 중 일부 학교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6개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37개 문항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부록 참조). 아울러 설문문항이 편입학 학생들의 대학간 이동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설문문항 중 편입학생들의 대학간 이동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되는 문항 5개씩을 우선순위로 제시하도록 하는 개방형 문항을 별도로 두었다.

본 설문조사는 2004년 9월 중순부터 동년 10월 중순까지 약 1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또한 설문조사는 편입학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와 친분이 두터운 해당 대학 교수들에게 의뢰하였으며 주로 학과교교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총 910부가 배포되었으며 그 중 530부가 회수되어 약 58%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530부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23부를 제외하고 최종 50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

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SPSSWIN 11.0 Version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빈도분석, F검증과 사후검증을 사용하였다. 또한 통계치의 해석은 많은 영향을 주었다(4점), 약간 영향을 주었다(3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2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1점) 등 4단계로 하였다.

IV. 연구의 결과

조사결과 해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대학 소재지역, 편입학 학생들의 배경변인 및 편입학 계획 시기 등에 따른 학생들의 대학간 이동 영향요인의 차이를 해석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통계적으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요소를 설명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의 경우, 각 요인들이 주는 영향력 정도에 대한 해석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이 4단계 척도인 점을 고려하여 응답 가능문항 총 점수의 합인 10점의 평균인 2.5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 3.0 이상은 아주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균 2.5~3.0은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2.0~2.5는 약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균 2.0 이하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학간 학생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간 학생이동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은 해석에서 제외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1. 대학간 학생이동의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수준

학생들의 대학간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조사대상 학생 전체의 인식수준이 <표4>에 제시되어 있다. <표4>에 제시된 대학간 학생이동의 영향요인에 대한 편입학 한 학생들의 인식수준을 보면, 고등학교 재학 시 미래 직업세계에 대한 진로상담 정도의 미흡이나 고등학교 졸업할 당시 진학하려는 대학 혹은 학과에 대한 정보의 부족, 처음 대학 진학 시의 불만족스러운 대학 및 학과(부)선택 등의 대학 이전요인과 취업에서의 유·불리와 같은 경제적 요인, 서울소재 대학진학 선호의 일반적 경향, 대학평판, 대학간관 중시 풍조, 4년제 대학 우선 분위기 등과 같은 문화적 요인 등 이들 세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위대학의 선호하는 교과 부재, 특성화된 전공, 복수전공, 이중전공 등과 같은 제도요인, 부모의 요구와 기대나 가족이나 친구들의 권유가 약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 전체의 영향요인별 인식 수준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대학이전요인	고등학교 진로지도	2.68
	대학선택	2.57
	가정 및 친구요인	2.02
학생의 지적요인	고등학교 성적	1.57
단위학교요인	학문적 분위기	1.91
	교육풍토	1.83
	제도	2.03
	사회적 분위기	1.52
	생활환경	1.92
	물리적 환경	1.91
	문화·경제적요인	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2.58	

가. 대학 소재지역 및 대학 급별에 따른 영향요인 인식 차이

편입대학 소재지역 및 대학 급별에 따른 대학간 학생이동의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가 <표5>에 제시되어 있다. <표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편입학 학생들의 대학간 이동에 영향을 준 요인들 중 대학이전 요인인 고등학교 진로지도 및 대학선택 요인은 대학의 소재지역 및 대학 급별에 관계없이 모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에 편입학 한 학생들은 모두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학교 요인에 속하는 요인들 중 교육풍토와 사회적 분위기는 대학의 소재지역에 관계없이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학 소재지역별로 보았을 때 대학간 학생이동에 영향 미친 요인들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천안지역으로 편입학 한 학생들은 가정 및 친구요인,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약간 받고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원지역으로 편입학 한 학생들은 가정 및 친구요인, 생활환경, 물리적 환경 요인의 영향을 약간 받고 문화적·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역 소재 대학으로 편입학 한 학생들은 제도요인과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약간 받고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제도요인 이외에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약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수원과 천안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편입학 한 학생들이 전문대학에 편입학 한 학생들보다 가정 및 친구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또한 수원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편입학 한 학생들이 다른 지역이나 전문대학에 편입학 한 학생들에 비해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반면($p < .01$), 전문대학에 편입학 한 학생들은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 요인과 마찬가지로 수원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편입학한 학생들이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지역, 천안지역의 순서였다. 수원과 천안지역 및 전문대학에 편입학한 학생들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 < .01$). 전문대학으로 편입학한 학생들은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편입대학 소재지 및 대학 급별에 따른 영향요인 인식 차이

구 분			천안	수원	서울	전문대	F값	사후검증
대학이전 요인	고등학교 진로지도	평균	2.63	2.74	2.68	2.67	0.56	
		표준편차	0.72	0.72	0.71	0.79		
	대학선택	평균	2.58	2.49	2.55	2.61	0.45	
		표준편차	0.82	0.86	0.73	0.89		
가정 및 친구	평균	2.13	2.13	1.96	1.79	4.85**	천안>전문대 수원>전문대	
	표준편차	0.91	0.86	0.87	0.83			
학생의 지적요인	평균	1.55	1.52	1.59	1.62	0.37		
	표준편차	0.77	0.79	0.82	0.86			
단위 학교 요인	학문적 분위기	평균	1.91	1.9	1.88	1.91	0.05	
		표준편차	0.63	0.66	0.62	0.59		
	교육풍토	평균	1.86	1.89	1.77	1.76	1.06	
		표준편차	0.71	0.71	0.72	0.68		
	제도	평균	1.99	1.91	2.06	2.15	2.21	
		표준편차	0.75	0.83	0.69	0.77		
	사회적 분위기	평균	1.53	1.47	1.55	1.52	0.36	
		표준편차	0.59	0.51	0.59	0.61		
	생활환경	평균	1.88	2.03	1.97	1.84	1.38	
		표준편차	0.78	0.88	0.91	0.71		
물리적 환경	평균	1.90	2.06	1.89	1.78	2.91*	수원>전문대	
	표준편차	0.77	0.77	0.72	0.74			
문화· 경제 요인	문화적 요인	평균	2.3	2.51	2.29	1.86	16.89**	천안>전문대, 수원>전문대 서울>전문대
		표준편차	0.76	0.77	0.8	0.71		
	경제적 요인	평균	2.56	2.93	2.62	2.25	8.55**	수원>천안 수원>전문대
		표준편차	1.08	1.06	1.1	1.1		

* $p < .05$, ** $p < .01$

나. 학생 성별에 따른 영향요인 인식 차이

편입학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대학간 이동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이 <표6>에 제시되어 있다.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들은 진로지도 및 대학선택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가정 및 친구요인, 생활환경, 문화적·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약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의 경우에도 남학생과

비슷하게 대학이전 요인 외에 제도요인 및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약간 받고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남여 공히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단위학교 차원의 영향요소들 중에는 생활환경요인과 제도요인이 약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진로지도 요인에 대한 인식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p < .05$), 교육풍토 요인과 사회적 분위기 요인 및 문화적 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p < .01$).

<표 6> 학생 성별에 따른 영향요인 인식 차이

구 분			남	여	F값	사후검증
대학이전 요인	고등학교진로 지도	평균	2.55	2.73	-2.54*	남<여
		표준편차	0.75	0.72		
	대학선택	평균	2.51	2.59	-.98	
		표준편차	0.87	0.82		
	가정 및 친구	평균	2.10	1.97	1.49	
		표준편차	0.93	0.86		
학생의 지적요인		평균	1.67	1.52	1.85	
		표준편차	0.87	0.77		
단위학교 요인	학문적 분위기	평균	1.95	1.89	1.09	
		표준편차	0.66	0.60		
	교육풍토	평균	1.94	1.77	2.45*	남>여
		표준편차	0.75	0.67		
	제도	평균	1.97	2.05	-1.14	
		표준편차	0.79	0.76		
	사회적 분위기	평균	1.60	1.48	2.08*	남>여
		표준편차	0.62	0.55		
	생활환경	평균	2.00	1.88	1.53	
		표준편차	0.85	0.79		
	물리적 환경	평균	1.93	1.89	.56	
		표준편차	0.77	0.75		
문화· 경제적요인	문화적 요인	평균	2.37	2.17	2.74**	남>여
		표준편차	0.80	0.78		
	경제적 요인	평균	2.70	2.52	1.67	
		표준편차	1.10	1.11		

* $p < .05$, ** $p < .01$

다. 학생 고교성적에 따른 영향요인 인식 차이

<표7>에는 편입학 학생들의 고교성적에 따른 영향요인 인식 차이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고교성적에 관계없이 모든 편입학 학생들이 진로지도, 대학선택 및 문화적·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을 고르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교성적이 낮아질수록 문화·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1$). 단위학교요인에 있어서는 고교성적에 따라 편입학에 영향을 준 요인들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7> 편입학 학생 고교성적에 따른 영향요인 인식 차이

구 분		성적	상	중	하	F값	사후검증	
대학이전 요인	고등학교 진로지도	평균	2.63	2.69	2.58	1.1		
		표준편차	0.87	0.70	0.78			
	대학선택	평균	2.46	2.58	2.54	0.91		
		표준편차	0.93	0.82	0.79			
	가정 및 친구	평균	1.92	2.05	1.96	0.74		
		표준편차	0.90	0.87	0.90			
학생의 지적요인		평균	1.66	1.52	1.72	1.48		
		표준편차	0.93	0.77	0.86			
단위학교 요인	학문적 분위기	평균	1.92	1.87	2.08	2.4		
		표준편차	0.57	0.62	0.67			
	교육풍토	평균	1.84	1.78	2.07	3.35*		중<하
		표준편차	0.68	0.68	0.79			
	제도	평균	2.05	2.01	2.10	0.47		
		표준편차	0.76	0.77	0.77			
	사회적 분위기	평균	1.51	1.49	1.67	1.59		
		표준편차	0.56	0.56	0.66			
	생활환경	평균	1.77	1.89	2.25	4.3**		상<하, 중<하
		표준편차	0.82	0.80	0.81			
	물리적 환경	평균	1.82	1.87	2.16	3.57*		중<하
		표준편차	0.76	0.74	0.76			
문화· 경제적요인	문화적 요인	평균	2.04	2.22	2.53	4.83**	상<하, 중<하	
		표준편차	0.81	0.78	0.78			
	경제적 요인	평균	2.20	2.60	2.86	4.87**		상<중, 상<하
		표준편차	1.09	1.10	1.10			

* $p < .05$, ** $p < .01$

예컨대, 고교성적이 상위수준이었던 학생들은 제도의 영향을 약간 받은 것으로, 고교성적이 중간수준이었던 학생들은 가정 및 친구요인과 제도의 영향을 약간 받은 것으로, 고교성적이 하위수준이었던 학생들은 교육풍토, 제도, 생활환경, 물리적 환경 등의 영향을 약간씩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교성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주목되는 점은 고교성적에 관계없이 편입학 한 모든 학생들이 단위대학의 선호하는 교과 부재, 특성화된 전공, 복수전공, 이중전공 등과 같은 제도요인의 영향을 약간씩 받았다는 점이다. 또한 고교성적이 하위수준이었던 학생들이 중간수준이었던 학생들보다 교육풍토와 물리적 환경요인의 영향을 더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p < .05$), 하위수준이었던 학생들이 상위수준이었던 학생들보다 생활환경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라. 이전 대학 평균 학점에 따른 영향요인 인식 차이

<표8>에는 편입학 이전대학에서 받은 평균 학점에 따라 대학간 이동 영향요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표 8> 이전 대학 학생 평균 학점에 따른 영향요인의 인식 차이

구 분		학점	A	B	C	D	F값	사후검증	
대학이전 요인	진로지도	평균	2.67	2.67	2.75	2.00	1.52		
		표준편차	0.75	0.72	0.75	0.98			
	대학선택	평균	2.46	2.64	2.76	2.62	2.59*		
		표준편차	0.85	0.81	0.85	0.75			
	가정 및 친구	평균	1.93	2.11	2.10	2.50	1.75		
		표준편차	0.88	0.87	0.81	1.29			
학생의 지적요인		평균	1.30	1.79	2.17	2.50	18.01**	A<B, A<C, A<D	
		표준편차	0.61	0.84	1.23	1.29			
개별학교 요인	학문적 분위기	평균	1.86	1.95	1.93	2.22	1.05		
		표준편차	0.61	0.64	0.68	0.45			
	교육풍토	평균	1.80	1.86	1.73	2.20	0.58		
		표준편차	0.70	0.71	0.74	0.53			
	제도	평균	1.94	2.09	2.23	2.25	2.07		
		표준편차	0.75	0.78	0.92	0.73			
	사회적 분위기	평균	1.43	1.60	1.55	2.16	3.63**		A<B
		표준편차	0.52	0.62	0.63	0.59			
	생활환경	평균	1.84	2.01	1.81	2.81	2.72*		
		표준편차	0.77	0.85	0.79	0.74			
	물리적 환경	평균	1.89	1.93	1.80	2.00	0.22		
		표준편차	0.77	0.75	0.71	0.81			
문화· 경제적요인	문화적 요인	평균	2.25	2.21	2.14	2.75	0.61		
		표준편차	0.81	0.78	0.80	0.73			
	경제적 요인	평균	2.61	2.55	2.47	2.25	0.24		
		표준편차	1.13	1.08	1.20	0.95			

* p< .05, ** p< .01

평균학점이 A수준이었던 학생들은 진로지도 및 대학선택 그리고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약간 받고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평균학점이 B수준이었던 학생들은 가정 및 친구, 제도, 생활환경요인들의 영향을 약간 받고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기한 점은 평균 학점이 낮아질수록 대학 이동을 실행한 이유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평균 학점이 A수준이었던 학생들이 대학간 이동을 실행한 이유는 문화적·경제적 요인 두 가지로 나타난 반면 평균학점이 B와 C 수준이었던 학생들

은 가정 및 친구요인, 제도, 생활환경 및 문화적·경제적 요인으로, 평균학점이 D 수준이었던 학생들은 가정 및 친구요인, 교육풍토, 제도, 사회적 분위기, 생활환경, 물리적 환경, 및 문화적·경제적 요인 등 아주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균학점이 높을수록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평균학점이 낮을수록 제도와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평균학점이 D수준인 학생들이 사회적 분위기로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으로 중간수준인 학생들이 약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마. 편입학 결정 시기에 따른 영향요인 인식 차이

<표9>는 편입학을 결정한 시기에 따른 영향요인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입학 결정 시기에 관계없이 진로지도 및 대학선택의 영향을 많이 받고 가정 및 친구요인의 영향을 약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편입학 결정 시기에 따라 영향요인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이전 대학 입학과 동시에 편입학을 결정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이전 요인 이외에 제도, 생활환경, 물리적 환경 요인들의 영향을 약간 받고 문화적·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전 대학 재학 중 편입학을 결정한 학생들은 단위대학 차원의 제도요인과 문화적·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약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재학생들의 유지와 관리에 있어 선호하는 교과, 특성화, 복수전공, 이중전공 등과 같은 제도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편입학 결정 시기에 따른 차이검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요인은 문화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었다. 즉, 이전 대학 입학과 동시에 편입학을 결정한 학생들이 이전 대학 재학 중에 편입학을 결정한 학생들보다 문화적·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표 9> 편입학 결정 시기에 따른 영향요인의 인식 차이

구 분		시기	이전대학 입학동시	이전대학 재학 중	F값	사후검증
대학이전 요인	진로지도	평균	2.63	2.70	-1.07	
		표준편차	0.66	0.75		
	대학선택	평균	2.53	2.59	-.64	
		표준편차	0.79	0.86		
	가정 및 친구	평균	2.11	2.03	.95	
		표준편차	0.91	0.88		
학생의 지적요인		평균	1.53	1.55	-.27	
		표준편차	0.77	0.80		
개별학교 요인	학문적 분위기	평균	1.93	1.90	.42	
		표준편차	0.66	0.60		
	교육풍토	평균	1.88	1.82	.90	
		표준편차	0.75	0.68		
	제도	평균	2.00	2.03	-.38	
		표준편차	0.76	0.77		
	사회적 분위기	평균	1.57	1.50	1.35	
		표준편차	0.60	0.55		
	생활환경	평균	2.03	1.90	1.59	
		표준편차	0.82	0.81		
	물리적 환경	평균	2.03	1.89	1.84	
		표준편차	0.74	0.77		
문화·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평균	2.52	2.16	4.68**	a>b
		표준편차	0.72	0.80		
	경제적 요인	평균	2.93	2.47	4.31**	a>b
		표준편차	1.00	1.11		

* p< .05, ** p< .01

바. 학생이동 유형에 따른 영향요인 인식 차이

본 연구에서는 편입학생들의 대학간 이동유형에 따른 영향요인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간 편입학 가능 유형을 11가지로 나누었다. 전체 편입학 학생들 중에는 지방 4년제 대학에서 지방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 한 학생들이 88명, 지방 2년제 대학에서 서울 2년제 대학으로 편입학 한 학생들이 86명으로 많았으며, 서울 4년제 대학에서 서울 2년제 대학으로 편입학 한 학생 7명과 서울 4년제 대학에서 지방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 한 학생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25명에서 54명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편입학 유형에 따른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고, 편입학 유형별로 살펴볼 필요도 있다. 특히 편입학 유형별 검토내용은 서울과 지방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간 학생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어느 정도 파악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단위학교 차원의 학생관리정책

수립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10>에는 11가지 편입학 유형에 따른 영향요인 인식 수준과 그 차이검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대학 이전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요인은 가정 및 친구요인이었고 서울 4년제 대학에서 서울 2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학생들이 이 요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단위학교 요인 중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 요인은 교육풍토와 생활환경요인이었다. 교육풍토요인에서는 지방 4년제 대학에서 지방 4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학생과 서울 2년제 대학에서 서울 4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학생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으며($p < .05$), 생활환경요인에서는 지방 4년제 대학에서 서울 4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학생들과 지방 2년제 대학에서 서울 2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학생, 서울 2년제 대학에서 서울 4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학생, 지방 2년제 대학에서 지방 4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학생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1$).

또한 지방 4년제 대학에서 서울 4년제 대학으로, 지방 4년제 대학에서 지방 4년제 대학으로, 서울 4년제 대학에서 서울 4년제 대학으로, 지방 2년제 대학에서 서울 4년제 대학으로 등의 순서로 이동한 유형들이 문화적 요인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p < .01$). 지방 4년제 대학에서 서울 4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학생들과 지방 2년제 대학에서 서울 4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학생들이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에 있어 지방 4년제 대학에서 서울 4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학생 및 지방 2년제 대학에서 서울 4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학생과 지방 2년제 대학에서 서울 2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학생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1$).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편입학 유형별 학생 이동의 영향요인을 종합해 보면, 서울 소재 대학에서 지방 소재 대학으로 이동한 학생들은 가정 및 친구들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지방 소재 대학에서 서울 소재 대학으로 이동한 학생들은 생활환경과 문화·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편입학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 볼 수 있다. 편입학 유형은 크게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한 유형,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동한 유형, 서울에서 서울로 이동한 유형,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동한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보다 세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모든 유형에서 고등학교 진로지도 및 대학선택 요인이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이 두 요인들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표 10> 학생이동 유형에 따른 영향요인 인식 차이

구 분		유형	A	B	C	D	E	F	G	H	I	J	K	F값	사후검증
대학이전 요인	고등학교 진로지도	평균	2.81	2.81	2.58	2.44	2.67	2.69	2.23	2.51	2.29	2.81	2.78	1.36	
		표준편차	0.67	0.79	0.69	0.76	0.82	0.74	0.78	0.73	0.93	0.75	0.65		
	대학선택	평균	2.53	2.80	2.53	3.00	2.62	2.51	2.07	2.29	2.75	2.75	2.53	1.47	
		표준편차	0.72	0.73	0.88	0.85	0.86	0.83	0.83	0.70	0.84	0.88	0.93		
	가정 및 친구요인	평균	2.10	1.78	2.22	1.70	1.81	2.04	2.42	1.76	2.25	2.30	2.19	2.50**	
		표준편차	0.90	0.90	0.88	0.94	0.85	0.98	0.93	0.86	1.19	0.81	0.80		
학생의 지적요인		평균	1.54	1.68	1.55	2.16	1.59	1.62	1.57	1.46	1.50	1.50	1.54	0.79	
		표준편차	0.83	0.94	0.74	1.33	0.85	0.80	0.78	0.76	0.75	0.78	0.80		
단위 학교 요인	학문적 분위기	평균	1.90	2.12	1.96	2.20	1.92	1.89	1.95	1.62	2.06	1.94	1.97	1.64	
		표준편차	0.62	0.46	0.63	0.82	0.60	0.65	0.84	0.56	0.49	0.71	0.67		
	교육풍토	평균	1.98	1.99	2.02	2.04	1.76	1.79	1.97	1.50	1.77	1.77	1.87	2.23*	C>H
		표준편차	0.75	0.64	0.71	0.95	0.67	0.75	0.85	0.61	0.64	0.66	0.68		
	제도	평균	1.77	2.32	1.87	2.43	2.17	2.05	1.92	1.80	2.50	2.20	2.13	2.68**	
		표준편차	0.67	0.67	0.74	0.87	0.75	0.77	0.92	0.68	0.69	0.95	0.80		
	사회적 분위기	평균	1.52	1.75	1.56	1.79	1.56	1.49	1.80	1.38	1.60	1.44	1.44	1.37	
		표준편차	0.53	0.71	0.62	0.87	0.63	0.53	0.84	0.49	0.64	0.44	0.50		
	생활환경	평균	2.45	1.90	2.26	1.97	1.94	2.05	1.78	1.40	1.62	1.53	1.81	7.74**	A>E, A>H, A>J, A>K
		표준편차	0.83	0.94	0.85	0.89	0.72	0.81	0.84	0.64	0.75	0.62	0.74		
	물리적 환경	평균	1.99	2.11	2.05	1.91	1.85	2.10	1.97	1.59	1.55	1.88	1.96	2.19*	
		표준편차	0.60	0.85	0.78	0.85	0.68	0.86	1.05	0.59	0.62	0.76	0.84		
문화·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평균	2.61	2.30	2.57	1.94	1.98	2.41	2.14	2.15	1.66	2.23	2.19	5.96**	A>E, C>E
		표준편차	0.56	0.98	0.76	0.64	0.76	0.79	1.03	0.72	0.92	0.81	0.74		
	경제적 요인	평균	3.15	2.56	2.80	2.16	2.31	3.00	2.28	2.44	2.00	2.63	2.45	4.19**	A>E, F>E
		표준편차	0.94	1.08	1.07	1.26	1.07	1.08	1.38	1.11	1.06	1.18	0.99		

* p < .05, ** p < .01

A: 지방4→서울4, B: 서울4→서울4, C: 지방4→지방4, D: 지방4→서울2, E: 지방2→서울2, F: 지방2→서울4, G: 서울4→서울2, H: 서울2→서울4, I: 서울4→지방4, J: 서울2→지방4, K: 지방2→지방4

첫째, 지방 4년제 대학에서 서울 4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경우(A유형)는 가정 및 친구 요인, 생활환경, 문화적 요인 및 경제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적 요인이 아주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서울4년제 대학에서 서울 4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경우(B유형)는 학문적 분위기, 제도, 물리적 환경, 문화적 요인 및 경제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 4년제 대학에서 지방 4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경우(C유형)는 가정 및 친구 요인, 교육풍토, 생활환경, 물리적 환경, 문화적 요인이 약간 영향을 주고 경제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지방 4년제 대학에서 서울 2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경우(D유형)는 학문적 분위

기, 교육풍토, 제도, 경제적 요인이 약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지방 2년제 대학에서 서울 2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경우(E유형)는 제도와 경제적 요인이 약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지방 2년제 대학에서 서울 4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경우(F유형)는 가정 및 친구요인, 제도, 생활환경, 물리적 환경, 문화적 요인이 약간 영향을 주었으며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아주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일곱째, 서울 4년제 대학에서 서울 2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경우(G유형)는 가정 및 친구요인, 문화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약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덟째, 서울 2년제 대학에서 서울 4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경우(H유형)는 문화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약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서울 4년제 대학에서 지방 4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경우(I유형)는 가정 및 친구요인, 학문적 분위기, 제도, 경제적 요인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유형의 경우 다른 유형과는 달리 제도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마지막으로, 서울 2년제 대학에서 지방 4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경우(J유형)와 지방 2년제 대학에서 지방 4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경우(K유형)는 동일하게 가정 및 친구요인, 제도, 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서울 2년제 대학에서 지방 4년제 대학으로 이동한 유형의 경우에는 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많았다.

2. 대학간 학생이동 영향요인들의 우선순위

학생들의 배경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한 편입학 학생들의 대학이동 영향요인 우선순위를 제시하면 <표11>과 같다. 이 때 우선순위별 누적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선순위가 높아질수록 특정 요인에 대한 반응이 집중되는 반면, 우선순위가 낮아질수록 학생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분산된 데 따른 것이다.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입학 학생들의 대학간 이동에 영향을 미친 1순위 요인들을 보면 대학 입학 시 전 대학에 대한 정보의 부족 및 처음 대학 진학 시의 불만족스러운 대학 및 학과(부)선택, 고등학교 때의 진로상담지도 미흡 등과 같이 대학이전 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 편입학 학생들이 인식한 대학간 학생이동 영향요인들의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해당요인	반응 %	해당요인	반응 %	해당요인	반응 %	해당요인	반응 %	해당요인	반응 %
대학선택	21.0	문화적 요인	18.2	문화적 요인	18.0	문화적 요인	16.8	가정/친구	14.5
진로지도	15.0	대학선택	14.5	제도요인	8.1	경제적 요인	10.6	문화적 요인	13.8
문화적 요인	12.8	제도요인	10.6	경제적 요인	7.4	가정/친구	10.3	대학선택	11.1
경제적 요인	10.8	경제적 요인	8.6	통학	7.1	대학선택	6.4	교육풍토	6.9
가정/친구	6.9	진로지도	4.7	진로지도	4.4	통학	5.4	통학	3.2
통학	6.4	통학	4.2	교육풍토	4.2	제도요인	4.4		
제도요인	5.9	교육풍토	3.7	대학선택	3.9	교육풍토	3.2		
누적비율	78.8	누적비율	64.5	누적비율	56.9	누적비율	57.9	누적비율	57.4

다음으로는 서울소재 대학진학 선호의 일반적 경향, 대학평판, 대학간관 중시 풍조, 4년제 대학 우선 분위기 등과 같은 문화적 요인과 취업 가능성을 나타내는 경제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요구와 기대, 가족이나 친구들의 권유와 같은 가정 및 친구요인, 그리고 통학의 어려움과 같은 생활환경 요인으로 약간씩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단위대학 차원의 영향요인은 선호하는 교과 부재, 특성화된 전공, 복수전공, 이중전공 등을 나타내는 제도요인이 유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니까 편입학 한 대학생들의 제시한 대학간 이동에 영향을 미친 1순위 요인들 중 약 73%가 단위대학 외적 요인들인 것이다.

또한 편입학 학생들의 대학간 이동에 영향을 미친 2순위 요인들을 보면, 문화적 요인과 대학선택 요인, 진로지도 및 경제적 요인이 1순위가 마찬가지로 여전히 아주 큰 영향을 주었으며, 단위대학 차원의 제도요인도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3~4순위에서 나타난 경향을 보아도 대학이전 요인과 문화·경제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많이 주고 있음 알 수 있으며 단위대학 차원에서 영향을 준 요인들은 제도요인, 교육풍토, 통학여건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 대학사회의 서울 중심주의 및 4년제 선호 현상에 따른 영향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학 소재 지역 및 대학 급별로 편입학 학생들의 대학간 이동에 영향을 준 1순위 요인을 정리하면 <표12>와 같다. <표11>에서와 유사하게 <표12>에서도 누적비율의 차이가 있는 바, 이는 대학의 소재지역과 대학 급별에 따라 우선순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집중되기도 하고 혹은 다양하게 분산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학의 소재지역과 대학 급별에 관계없이 진로지도와 대학선택과 같은 대학 이전 요인과 문화·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가장 큰 점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전반적 경향과 유사하지만 대학 소재지역에 따라 영향요인의 비중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12> 대학 소재지역 및 대학 급별에 따른 우선순위별 대학간 학생이동 영향 요인 1순위

천안지역		수원지역		서울지역		전문대학	
요인	반응(%)	요인	반응(%)	요인	반응(%)	요인	반응(%)
대학선택	24.2	문화적 요인	20.2	문화적 요인	18.4	대학선택	25.8
진로지도	19.0	진로지도	19.1	경제적 요인	16.7	진로지도	20.3
문화적 요인	7.8	대학선택	15.4	대학선택	16.6	제도	14.6
경제적 요인	7.2	통학	12.5	진로지도	10.0	경제적 요인	12.4
가정/친구	7.2	경제적 요인	11.5	제도	6.7	가정/친구	7.9
제도	5.9	가정/친구	7.7	사회적 분위기	5.0	문화적 요인	3.4
누적 비율	71.3	누적비율	86.4	누적비율	73.4	누적비율	84.4

예컨대, 천안지역으로 편입학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선택 24.2%, 진로지도 19.0%, 문화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각각 7.8%와 7.2% 등의 순서로 나타나 대학이전 요인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반면 수원지역으로 편입학 한 학생들은 문화적 요인 20.2%, 진로지도 19.1%, 대학선택 15.4%, 통학 12.5%. 경제적 요인 11.5% 등의 순서로 나타나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다른 요인들도 고르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울지역으로 편입학 한 학생들은 문화적 요인 18.4%, 경제적 요인 16.7%, 대학선택 16.6%, 진로지도 10.0%, 제도 6.7%, 사회적 분위기 5.0% 등의 순서로 영향을 받았으며,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선택 25.8%, 진로지도 20.3%, 제도요인 14.6%, 경제적 요인 12.4%, 가정/친구요인 7.9%, 문화적 요인 3.4% 등의 순서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대학생들의 대학간 이동을 실행하게 한 가장 큰 영향요인은 대학이전 요인이며, 다음으로 서울과 가까운 대학에 편입학 한 학생들일수록 대학이전 요인 이외에 문화적·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전문대학으로 이동한 학생들은 제도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위대학 차원의 영향요인 중에서는 제도요인과 통학의 편리함과 같은 생활환경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대학간 이동을 실행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밝히는데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대학간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본 연구를 위한 연구의 영역 및 내용을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영역 및 내용에 기초하여 설문지를 제작하고 사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64 \sim .87$ 이었다.

조사대상은 서울, 수원, 천안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 8개 대학과 서울 소재 전문대학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507명이었으며, 조사기간은 2004년 9월 중순부터 동년 10월 중순까지 약 1개월 동안 이었다. 총 910부가 배포되었으며 그 중 530부가 회수되어 약 58%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530부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23부를 제외하고 최종 50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SPSSWIN 11.0 Version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평균, 빈도분석, F검증과 사후검증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이 대학간 이동을 실행하는데 있어 대학이전 요인과 문화·경제적 요인은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그 외 대학의 소재지역, 학생의 성별과 고교 성적, 이전대학 평균학점, 편입학 결정 시기, 학생이동의 유형 등에 따라 영향요인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영향요인의 우선순위에 있어 대학 이전 요인, 경제적 요인 및 문화적 요인 등의 순서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단위대학 학사운영제도요인, 통학의 편리함, 부모의 요구와 기대나 가족이나 친구들의 권유와 같은 요인들이 약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간 이동을 실행한 학생들이 영향요인에 관하여 제시한 우선순위의 약 73%가 단위대학 외적 요인이었던 바, 이를 대학교육의 성과에 대한 대학조직 내 제 요인들의 영향력이 약 22-32% 수준이라는 오영재·박행모·손준중(2001)의 연구결과와 함께 고려해보면, 우리나라 대학의 내적 요인들이 대학조직의 교육생산성과 학생 유지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대학생들의 대학간 이동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학생의 성별 요인과 고등학교 성적, 이전 대학에서의 평균학점, 대학의 소재지, 단위대학의 학사운영제도와 특성화, 문화·경제적 요인들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대학간 이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 온 학생 개인과 대학의 통합정도, 단위대학의 교육풍토, 단위대학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지원 등과 같은 단위대학 요인들은 본 연구에서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선행연구들에서 비교적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진로지도와 대학선택과 같은 대학이전 요인과 문화·경제적 요인과 같은 대학 외적 요인의 영향력이 아주 큰 것으로 밝혀진 점이 특기할 만 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의 표집이 서울 및 서울 인근지역에 소재한 대학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으로까지 일반화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학특성화의 긍정적 효과를 밝히고 있는 오영재·박행모의 연구(2003) 결과를 고려하여 특성화에 성공한 사례

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학부(과) 혹은 지방의 우수한 거점대학으로 편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정책과 단위대학의 행정에 관련된 연구들이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 많이 치우쳐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대학생들의 대학선택과 잔류 결정력을 중시하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시각을 연구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 사실 신입생 모집과 재학생 유지에 있어 위기에 처한 대학들이 요구하는 지원대책은 무성하지만, 대학생들이 대학간 이동을 생각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이유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것이 정보가 거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학간 학생이동의 복합적 영향요인과 그 요인들의 상대적 비중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으로나 고등교육정책 차원에서 볼 때 하나의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강무섭(1999). 지방대학의 학생유인체제 강화 방안. 지방대학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교육부. 내부자료
- 권 균(1991). 대학에서의 중도탈락 원인과 그 억제방안. *교육학연구*. 29(3). 235~249.
- 교육인적자원부(2000). 대학편입현황 및 개선방안.
- 교육인적자원부(2001). 교육통계연보.
- 교육인적자원부(2002). 교육통계연보.
- 김재웅(1992). 미국 대학생 중도탈락 : 개인·사회구조·대학의 상대적 중요성. *교육행정학연구*. 10(1). 17-48.
- 백성준 외(2003).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방대학의 육성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기본연구 03-1.
- 이두휴·고형일(2003). 대학서열체계의 공고화와 지역 간 불균등 발전. *교육사회학연구*. 13(1). 191~214.
- 이병식(2003). 대학생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기관특성의 탐색적 분석. *교육학연구*. 41(2). 135~154.
- 이수오(2000).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 오영재·박행모·손준중(2001). 대학교육의 성과에 대한 대학조직 내 제 요인들의 영향력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9(3). 207-231.
- 오영재·박행모(2003). 지방 사립대학의 특성화 전략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1(1). 239-268.
- 한국교육개발원(1993). 학생이동의 실상과 대책. 연구보고 RR 93-11.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3).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기본사업 03-6-1.
- Anderson, K. L.(1981). Post high school experiences and college attrition. *Sociology of Education*. 54. 1~15.
- Andreu, M. L.(2002). Developing and implementing local-level retention studies: a challenge for community college institutional researchers. *Community Colleg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s*. 26. 333-344.
- Anglin, L. W. et al.(1995). Do transfer students graduate? A comparative study of transfer students and native university students. *Community Colleg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19. 321~330.
- Austin, A. W.(1977). *Four critical year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Bean, J.(1983). The application of model of turnover in work organizations to the student attrition process.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6. 129~148.
- Blakers, R. et al.(2003). *Mobility: why do university student move?* Occasional Paper Series 03-A, Research Analysis and Evaluation Group,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
- Braxton, J. M., Milem, J. F, & Sullivan, A. S.(2000). The influence of active learning on the college student departure proces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1(5). 569-89.
- Cabrera, A. F., et al.(1992). The convergence between two theories of college persistenc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3(2). 143-164.
- Cabrera, A. F., Nora, A., & Castaneda, M, B.(1993). College persiste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est of an integrated model of student retentio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4(2). 212-239.
- Cabrera, A. F., Nora, A., & Castaneda, M, B.(2003). College persistence: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test of an integrated model of student retention.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4(2). 123-139.
- Des Jardins, S. L., Ahlburg, D. A., & McCall, B. P.(1999). An event history model of student departure.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8(3). 375-390.
- Elkins, S. A., Braxton, J. M., & James, G. W.(2000). Tinto's separation stage and its influence on first-semester college student persistence.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1(2). 251-268.
- Getzlaf, S. B., et al.(1984). Two types of voluntary undergraduate attrition: An application of Tinto model.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20. 257-68.
- Glass, Jr., J. C., and Harrington, A. R.(2002). Academic performance of community college transfer students and native students at a large state university. *Community Colleg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s*. 26. 415-430.
- Grubb, W. N.(1991). The decline of community college transfer rat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2. 194~222.
- Grubb, W. N.(2003). The decline of community college transfer rates: evidence from national longitudinal survey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2(2). 194-222.
- Leppel, K.(2001). The impact of major on college persistence among freshmen. *Higher Education*. 41. 327-342.
- Light, R. J.(2001). *Making the most of college : students speak their minds*. Harvard

University.

- Meyer, J. H. F.(1995). Gender-group differences in the learning behavior of entering first-year university students. *Higher Education*. 29. 201-215.
- Prager, C.(1993). Transfer and articulation within colleges and universitie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4(5). 539-554.
- Pritchard, M. E. and Wilson, G. S.(2003). Using emotional and social factors to predict student succes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4(1). 18-28.
- Rhine, T. J., Milligan, D. M, & Nelson, L. R.(2000). Alleviating transfer shock: creating an environment for more successful transfer students. *Community Colleg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24. 443-453.
- Rowley, J.(2003). Retention: rhetoric or realistic agendas for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17(6). 248-253.
- Shelton, DNSc, RN, E. N.,(2003). Faculty support and student reten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2(2). 68-76.
- Soytar, G. N., and Turner, J. P.(2002). Students preferences for university: a conjoint analysi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16(1). 40-45.
- Tinto, V.(1988). Stages of student departure: Reflections on the longitudinal character of student leaving.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9(4). 438-455.
- Tinto, V.(2003).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2nd E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ild, L., and Ebbers, L.(2002). Rethinking student retention in community colleges. *Community Colleg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s*. 26. 503-519.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tudent Mobility between Universities

Oh, Young Jae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student mobility between universities. For this purpose, Domains and contents of research was systematically constructed, and based on this domains and contents of research a questionnaire for this research was made. After an initial pre-test,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a sample of student in 8 Korea Universities and 2 College located Seoul, Suwoon, and Cheon-an. Reliability of questionnaire was Cronbach $\alpha = .64 \sim .87$. The sampling yielded 507 usable questionnaire. Frequency analysis and F-test were used to analysis collected data. Major findings as following;

Pre-University factors such as insufficient life course guidance during high school and unsatisfactory choice of university or major, economic factors as favorableness in getting jobs, and cultural factors as general preference tendency for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and universities reputation were consistent powerful influencing factors regardless student various background variables.

Besides, Academic operation system factor such as specialized subject and dual major system, convenience of attending universities, expectancy level of parents, and encouragement of friends were slightly strong influencing factors. 73% of factors influencing student mobility between universities was outside factors of universities.

【Keyword】 university, college, student mobility